

# “기도의 지팡이 성령의 전신갑주”

# News Letter

발행인 | 오정현  
기획 | 특새 TFT  
발행처 | 사랑의교회  
www.sarang.org

S A R A N G C h u r c h

## TODAY'S PRAYER



### 생명과 치유를 위한 부르짖음

#### 01

인생의 거친 파도와 이 시대의 험난한 물결 속에서, 기도 지팡이를 높이 들어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 충만한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특새가 되게 하옵소서.

#### 02

성령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 버린 돌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 돌 인생이 되며 시대적 소명을 위해 주님 손에 붙들린 신적 능력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 03

특새를 통해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의 상록수 신앙을 회복하여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새 차원의 '생명과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 秋 日 一 禱 道

## “가을날 드리는 전심의 기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기도 없이는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일곱 번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주님의 사역에 결정적인 전환이 일어났습니다(참고; 3:21; 5:16; 6:12; 9:18,28; 11:1; 22:41). 7번만 기도하신 게 아닐 터인데 7번(성경의 완전수)으로 축약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공고하고 온전하게 임하였음'을 드러내려는 상징적인 선언일 것이라 믿습니다.

2017년은 기도로 풍성한 한 해였습니다. 요셉의 담을 넘은 생명 가지를 경험한 봄 특별새벽부흥회,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의 신앙을 꿈꾸며 기도로 마음을 모은 매주 토비새에 이어, 이제 깊어가는 가을의 문턱에서 한 번 더 부르짖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시다. 모세가 들었고, 다윗이 지니기도 하였던 지팡이를 우리도 들시다. 마른 막대기도 하나님이 함께 들어 주시면 험로를 열고 반석을 가르는 신적 능력의 도구가 됩니다.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입혀주셨던 하나님의 전신갑주(엡 6:13-17)를 입읍시다. 이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서는 사정없이 쏟아지는 적의 불화살을 막아내고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엡 6:13) 있을 수 없습니다.



photo by SRC

15차 가을 특별새벽부흥회에 다형 김현승 시인이 말한 "겸허한 모국어"의 기도가 안아주심의 본당을 가득 채우고, 마치 향로에 담긴 향처럼 하늘보좌로까지 올라가는 환상을 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행하지 않기로 하셨던 양, 마침내 우리의 기도 향기를 맡으시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눈 밝혀주시고, 감싸시고, 변화시켜주실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주여, 기도의 모범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기도할 때 변화와 성숙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여, 마른 막대기가 인생의 나침반, 권능의 지휘봉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간신히 살아남는 패잔병이 아니라 승전의 장수로 살게 하옵소서!

### 기도할 수 있는데,,,

“유혹이 아니라  
절망이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 데니스 가빈 (Dennis Garvin)

15차 가을 특별새벽부흥회의 첫날에,  
담임목사 오정현 드림



일도일도주성취 / 한 번의 강청기도로 한결음 더 나아가면, 주께서 이루시고 주께서 세우신다 (침언절구 오정현 담임목사 작, 서예가 이은순 권사 서)  
오늘 특새 기사판 (<http://revival.sarang.org>)에 '일도일도주성취'로 7행시를 지어 올려주시는 분 중 세 분을  
추첨하여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당첨 문자 받으실 휴대전화 번호를 남겨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린 후 나는 완전히 달라졌다

## 인생기도 1

장기려 박사

사람은 다 병자이다. 한번은 병들어 죽는다. 육은 죽어도 영혼은 영생한다. 육의 병의 대다수는 자기 몸에서 저항하는 힘이 생겨서 병변을 제거하고 회복하는 기전으로 자연히 낫는다.

이것은 과학자들은 자연법칙에 의한다고 하지만 이 자연법칙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의 법칙으로 낫는다고 말할 수 있다. ...어떤 유명한 의사도 100% 진단을 바로 하거나 어떤 특효약도 100% 낫게 하는 것은 없다. 결국 몸에서 나올 수 있도록 되어서 낫는 것이어서 과학적으로 설명되는 것이든지 설명되지 않는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야고보가 이 글을 쓸 때에는 의사가 많지 않았고, 또 교회의 사명은 병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능력, 즉 믿음을 얻게 하는 데 있었으며 또 그것으로 병이 낫게 되는 것을 경험했던 것으로 믿어진다.

이제 나는 나의 경험을 들어 증거하려고 한다. 지금으로부터 약 35년 전의 일이다. 나의 둘째 딸 성용이는 출생후부터 몸이 약하고 체중이 정상보다 적고 때때로 기침과 설사를 자주하여 병이 많았다. 그 아이가 3세때에 기침이 심하고 가래가 끓고 열도 높고 오르고 숨이 차서 폐의 X-선 촬영을 하였더니 양측 폐야에 혼탁된

음영이 나타났다. 척 보아 급성 폐렴이었다. 소아과 전문의사를 청해서 치료를 받았으나 효과가 나타나지를 않았다. 나는 그 때에 교회의 장로 방계성 목사님을 청해서 기도해달라고 했다. 방장로님은 병이 나아지기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아버지의 영광 만이 나타나게 되기를 간구했다. 그 아이의 생명을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리는 기도이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셨다. 그후 몇 시간이 안 되어 아이는 숨차던 것이 나아지기 시작하고 열이 떨어지면서 땀이 나며 조금씩 나아져서 몇 일 안에 완치되었던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믿고 그의 영광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고 한 것은 주의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라고 하신 것이다. 사랑은 옳은 방법을 찾아 낸다. 이것이 의학 발전의 철학이다.

(출처: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jyoun24&logNo=220736062912&proxyReferer=https%3A%2F%2Fwww.google.co.kr%2F>)

### season2

오정현 담임목사가 추천하는

## 기도 고전, 기도 명저

### 믿음이 이긴다

존 화이트 저 / (생명의말씀사 간)



정신과 의사, 저술가 그리고 목회자로 활약한 복음주의자 존 화이트는 성경 반입이 금지된 나라들에서 전도하던 선교사이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회심을 목도하면서 그 초신자들이 신앙을 가진 직후 직면하게 되는 날것 그대로의 현실을 성경적으로 조언하는 책들을 여럿 저술했는데, 그 중에서도 "믿음이 이긴다"가 압권이라 생각하여 추천합니다.

저자는 신앙을 가진 후 직면하는 현실은 한마디로 '전투'라고 합니다. 옛 어둠에 맞서고 믿음의 성장을 위해 고투하고 새로운 관계를 배우며, 인도하심을 경험하여 점점 더 하나님 자녀의 자세를 갖추는 과정은, 결코 기도, 말씀의 무장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고자 하는 의식적인 노력이라는 절차탁마의 지난함 없이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는다고 역설합니다. 영적전투가 무엇인지 궁금했던 성도들이 읽어도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관념이 아니라 원서의 제목처럼 "The Fight" (싸움)입니다.

## 공의로운 해 치료하는 광선(말 4:2)

### 돌을 굴리다

친정오빠의 갑작스런 혈액암 4기 판정은 슬픔과 절망 그 자체였다. 급성으로 골수, 간, 비장에 전이되어 남은 시간을 두 달 남짓으로 선고받았다. 나에게 얼마나 각별한 오빠였던가. 학창시절 전교1등을 놓친 적이 없던, 최고 대학에 최고 학부를 졸업한, 많은 달란트를 가진 오빠였다. 그러나 동생의 눈에 비친 오빠의 삶은, 마음의 평화와 진정한 자유를 모르기에, 행복과는 먼 삶이었다. 짓누르는 삶의 부담이 결국 병으로 왔을 터였고, 앙상하게 마른 소망없는 불쌍한 모습에, 나 역시 어쩔 줄 몰라 하나님아버지만 불러댔다.

‘돌을 굴러라’ 토비새 때 목사님의 나사로 설교가 모든 것을 바꿨다. 내 귀에 크게 울려 머문 ‘돌을 굴러라’ 전능하신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나올 수 있을 나사로이건만, 굳이 남은 자매들에게 돌을 굴리라고 하신 이유를 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어떻게 돌을 굴린단 말인가. 아! 기도로구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기도의 힘을 모으는 것이구나!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먼저 예배의 회복을 위해 친정부모님과 언니에게 줄 날쌘과 다락방교재부터 샀다. 교회를 떠난 분들이었다. 매주 다락방 예배만으로도 그들의 영이 차차 회복되어감을 느끼며 이제 주일 예배를 강권하고 있다. 돌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고 믿는다. 기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오빠를 일으키시어, 훗 날 우리 남매와 꼭 닮은 ‘나사로 삼남매’로 복음전하고 간증하며 살 수 있기를 매일 기도한다. 교구와 호스피스목사님, 순장반, 제자반, 사역반, 다락방, 중보기도실의 중보기도가 얼마나 고맙고 든든한지 모른다.

의학적으로는 오빠의 생존율이 입에 담기조차 미미하다. 수 차례의 항암치료로 암세포가 50% 줄었다지만, 병원에서는 낙관할 결과가 아니란다. 그러나 나는 여기까지 온 것도 기적으로 여기며 온 힘을 다해 돌을 옮길 뿐이다. 오빠가 오직 주만 바라보게 되기를, 치유 받아 오빠의 남은 인생을, 바울과 같은 복음 전도자로 살다가 하나님 아버지가 부르시면 기쁜 마음으로 천국에 가게 되기를 기도한다.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 이영희 집사 (서초기쁨3순장)



photo by SRC

### 주 내영혼의 치료자

주님이 제 삶에 행하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상처받은 제 영혼을 어떻게 고치셨는지는 저와 주님만이 압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서러움과 힘들어 지칠 때마다 펴서 읽던 말씀이 있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마10:29) 온갖 어려운 상황에서 서도 이 모든 훈련 끝에 주실 더 큰 축복을 기대하여 버텼고, 과연 하나님은 제게 그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부부는 결혼 십 년이 다 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거듭된 시험관 아기의 실패는 고통과 자책감으로 많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아이가 없다는 사실보다 하나님이 왜 우리부부에게 아이를 허락하지 않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받는 결혼을 한 건 맞는지, 내가 아이를 키울 만한 그릇조차 못 되는 건지, 기도하다 실망하고 원망하며 괴로움에 시달렸습니다. 후배 결혼식에서, 한참 어린 다른 후배가 임신하여 배가 불러있는 모습을 보고는 밥도 못 먹고 그냥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더 사랑하셔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임을, 제 속마음으로는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짐작과 상처는 반복되어갔습니다. 일곱 번째 시술의 결과를 기다릴 때였나 봅니다. 초조함과 답답한 마음으로 가을 하늘아래 단풍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울린 전화는 역시나 실패를 통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날의 저는 이상하게도 걷던 길을 계속 걸으며 찬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울면서 불렀던 그 찬양은 분명 저의 상황과 맞지 않았습니다. 저는 실망했지만 제 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저를 위로하고 계셨습니다.

십 년 만에 허락하신 아들이가 제 옆에서 저녁밥을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들 손을 잡은 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복 받쳐, 눈물의 감사로 그 날의 그 찬양을 올립니다.

- 문윤아 집사 (신갈3다락방)



photo by SRC

